

남성의학 전문의 소영석의
술직·대담한 性

40대 초반의 남성이 굳은 얼굴로 통증을 호소하며 구부린 자세로 진찰실을 들어왔다. 주말 부부인 이 환자는 오랜만에 부부관계를 갖다 보니 평소보다 좀 더 흥분된 상태에서 여성 상위 체위로 부부관계에 몰입해 있다가 부인이 성기가 빠진 줄 모르고 힘을 쥐 내려앉았고 '뚱'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시작되면서 발기가 소실됐다고 했다. 성기에 피멍이 들면서 점차 퍼져나가고 바나나 모양으로 성기가 구부러지며 통증도 심해졌으나 환자는 창피하고 무서운 마음에 응급실로 가지 못했다. 환자는 밤새 통증에 시달리며 발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으로 고민하다가 날이 새자 병원을 찾았고 음경골절 진단을 받았다.
초식동물의 음경에는 뼈가 없는 반면 원숭이, 여우, 개 등 육식이나 잡식 동물에는 음경골이라

'남성'도 부러질 수 있다

고 하는 뼈가 있어 발기시 강직도와 지속시간을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특이하게 잡식인 사람은 음경에 뼈가 없지만 발기가 이루어지면 뼈가 있는 듯 단단해진다. 이때 음경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해면조직을 감싸는 하얀 막이 찢어지면서 출혈이 생기고 남성은 '뚱'하고 부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음경골절이라 부른다. 골절이란 원래 뼈가 부러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며 비노기과에서 흔한 질환도 아니다.
대부분의 음경골절은 여성상위체위에서 잘 발생하며 질 내 삽입된 상태에서 여성이 앞뒤가 아닌 옆 방향에서 움직이거나 음경이 질에 제대로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꺾이면서 일어난다. 남성을 맞아들일 준비가 덜돼 질내의 윤활액 분비가 부족한 여성에게 무리하게 삽입

을 시도하거나 자위행위도중 음경에 지나친 압박을 주거나 비정상적으로 꺾을 때도 발생한다. 이 외에도 약간 흰 성기의 굴곡을 억지로 곧게 편다거나 드물게는 수면 중 발기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음경이 꺾여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교통사고나 아침에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40대 이후에는 백막이 약해지는데 젊은 여성과의 성관계, 성기능개선제에 의해 엄청 단단하게 발기된 상태에서의 과도한 저항이 골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음경골절이 일어나는 순간 단단하던 발기는 사라지고 출혈로 음경이 붓고 피부색이 검푸르게 변하면서 심한 통증이 동반되고 파열된 백막 반대쪽으로 음경이 구부러지며 요도에서 피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요도손상이 동반된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압박붕대나 얼음찜질,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근래에는 즉각적인 수술적 치료가 음경골곡이나 변형, 혈종의 지속 및 농양의 발생 등 합병증의 발생빈도를 훨씬 낮추고 입원기간의 단축 및 음경발기능력을 조기에 회복시킬 수 있어 선호되고 있다. 응급치료가 잘 된 경우에는 대부분 큰 문제없이 회복되며 일부에서만 합병증으로 음경 만곡이나 성교 통증,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골절 후 6~8주간은 성행위나 자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치료가 늦어지면 합병증 발생도 증가하고 발기불능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참피한 마음과 빨리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음경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이성을 얻을 정도로 흥분하거나 너무 무리한 체위 또는 과도한 성관계시 여성의 신체가 배우자를 성기농장애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명비노기과 원장>

리빙 센스
아이들의 시력검사

아이들의 건강한 눈과 시력을 위해서는 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유치원, 초중고교에 입학하기 바로 전에 시력검사를 하고 이미 안경을 쓰고 있는 아이들도 정기적인 시력검사를 해 눈에 맞는 안경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시력검사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책을 눈 가까이 갖다 대고 읽거나 또는 너무 멀리 떼어 놓고 읽는다.
② 무엇을 볼 때 눈살을 찌푸린다.
③ 부모형제,자매들 중 근시나 원시 또는 난시 등 시력 장애가 있다.
④ 아이의 학교 성적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떨어진다.
⑤ 사시가 있거나 사시가 있다고 의심된다.
⑥ 안경을 쓴 아이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TV를 본다.

함께 풀어봅시다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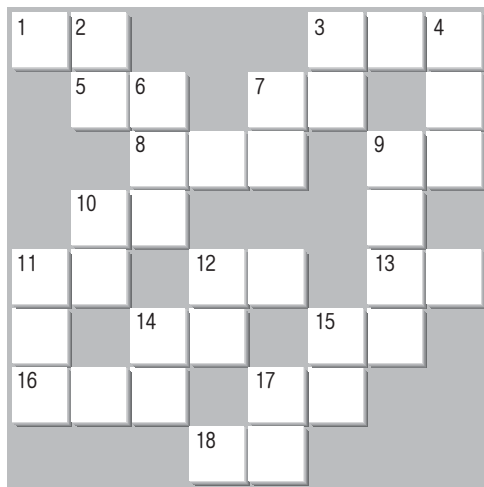
→ 가로풀이

1.총으로 짐승을 잡는 사냥꾼. ~를 보고도 노루는 도망 가지 않았다. 3.생산된 재화를 운반하거나 생산·설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5.자세히 따져서 물을 받음이 당사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7.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둘러치는 막. 8. 나무로 만든 긴 막대기처럼 굵게 내리는 비. 9.시험시간에 빠져 시험을 치지 못함. 10.매우 싼 값. →저가. 11.얼굴에 엄정한 빛을 나타내거나 그런 얼굴 빛. 그는 ~을 하고 말했다. 12.두 날. 양말. 우리는 ~을 꼬박 굶었다. 13.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돌 등으로 쌓은 구축물. 최후의 ~. 14.라벤더, 로즈마리 등 약이나 향료로 쓴 식물을 일컫는 외래어. 15.신하가 임금에게서 특별한 은혜를 받음. 전

하 ~이 망극하옵니다. 16.해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 17.전장에 참가함. ~ 용사. 18.결혼식 등에서 부르는 축하의 뜻을 담은 노래.

↓ 세로풀이

2.매우 근심함. 또는 그런 마음. ~에 찬 얼굴. 3.연극이 시작되는 첫 막. 무슨 일의 시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사방 벽으로 둘러싸인 코트에서, 라켓으로 고무공을 벽에 맞히고 공이 마루에 두 번 튀기기 전에 되받아 치는 구기 경기. 6.글을 뛰어넘어 잘 짓는 사람. 7.중국의 삼국시대 때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결의를 맺었던 장수. 9.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값을 이르는 말. 중국 춘추 시대에 진나라 위와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서모를 개가시켜 순사(殉死)하지 않게 하던 터 싸움터에서 서모 아버지의 혼이 풀을 묶어



<함께 풀어봅시다 306회 정답>

▲지나주 정답자

윤거병 : 광주시 남구 노대동
양기원 : 광주시 동구 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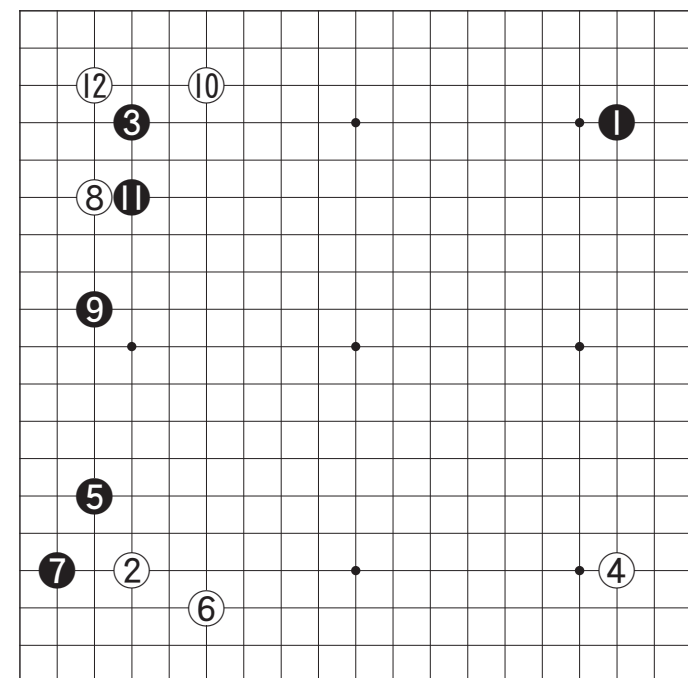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예재부

적을 넘어뜨려 위와가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10.열료를 사용해 실이나 천 등에 물을 들임. 11.마찰한 물체가 떠는 이동하지 않는 전기. ~가 잘 일어난다. 12.성서에 나오는 아담의 아내. →하와. 14.헛일. 노력했지만 모든 일은 ~로 돌아갔다. 15.싸움에서 이김. 17.모임이나 단체 또는 일에 관계해 들어감. ~ 대상.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지역 바둑대회

돌풍 신예와 전통 강자

3회전 1국 1보(1~12)

白 박광주 5단 (포스코)
黑 김현승 5단 (창이유통)

이번에는 직장대항전에 처음 참가하여 팀원들의 고른 활약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우승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창이유통의 김현승 5단과 역시 우승후보인 포스코 박광주 5단의 3회전 대국을 소개한다.

김현승 5단은 시합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농협외 백승열 5단과 조선대학교의 백전노장 이한재 5단을 연파하고 2연승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치며 창이유통의 돌풍을 주도하고 있다.

박광주 5단은 직장대항전의 강자인 포스코의 주장으로 단체전은 물론

이고 개인전에서도 언제나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다. 과연 예상대로 1회전에서 우승후보인 북구청 허우석 5단을 꺾는 기염을 토하더니 2회전에서도 시청의 정순필 5단을 물리치고 2연승을 기록,우승컵을 향해 순항중이다.

이 한편의 결과에 따라 이번 직장대항의 관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과연 누가 승리를 차지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3회전 최고의 박매치다.

흑 9의 협공에 백 10으로 되협공하고 12로 쳐들어간 것이 발빠른 포석이다. <규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다카오신지, 본인방 4연패 도전

일본의 다카오신지 9단이 본인방 4연패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카오신지는 오는 23~24일 제63기 일본 본인방전 도전 7번기 4국을 벌인다. 그는 지난 11~12일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열린 3국에서 타이틀 보유자인도전자 하나나오키 9단을 245수 만에 불계승으로 누르고 3연승을 거뒀다. 종합전적 3 : 0으로 타이틀 방어를 눈앞에 두게 됐다.

다카오신지는 제60기 본인방전에서 장수 9단으로부터 4 : 1로 타이틀을 획득한 후 제61, 62기에서 아마카미모 9단, 요다 노리모토 9단 등을 차례로 꺾으면서 3연패를 기록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3일(음 5월 20일 甲午)

Horoscope section with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for the day.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contact information.

굿모닝 잉글리쉬 <1187>

How's work?
잘 돼가니?

A: How's work?
B: Terrible. Just terrible. Is it wrong for me to quit the job?
A: Well, do you think that's the best thing to do?
B: I don't know. I'm just so frustrated with my boss.
A: 잘 돼가니?
B: 엉망이야, 아주 엉망이라도.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 잘못이니?
A: 음,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B: 모르겠어, 난 정말 좌절이 심해, 사장 때문에 말이야.
* 내가 그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 잘못이니?
= Is it wrong for me to question him?
* 내가 그 의원님에게 말을 걸어도 되는 걸까?
= Is it appropriate for me to talk to the congressman?

오하오우 니혼고 <1187>

けっこうなお住(す)まいですね
 훌륭한 집이군요

A: けっこうなお住(す)まいですね.
B: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退職金(たいしよくきん)をはたいて建(た)てたんですよ.
A: 周りに緑が多くて環境(かんきょう)もいいし素晴らしいですね.
B: ええ、私達も氣(き)に入(い)ってるんですよ.
A: 훌륭한 집이군요.
B: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털어서 지은 집입니다.
A: 주위에 나무가 많아서 환경도 좋고 멋있습니다.
B: 예에, 우리들도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お住(す)まい: 주거
はたく: 털다, 털어내다
氣(き)に入(い)る: 마음에 들다

니하오 쫑구워 <164>

八点上课。
8시에 수업이 시작합니다

A: 你几点上课?
Ni jǐ diǎn shàng kè?
니 지 디안 상케?
B: 八点上课。
bā diǎn shàng kè.
팔 디안 상케.
A: 那, 几点下课?
Nà, jǐ diǎn xià kè?
나, 지 디안 하케?
B: 下午一点下课。
Xiàwǔ yí diǎn xià kè.
하오우 이 디안 하케?
A: 몇 시에 수업을 시작하니?
B: 8시에.
A: 그럼, 몇 시에 수업이 끝나니?
B: 오후 1시에.
上课 [shàngkè] 수업하다

한자 이야기 <804>

杜門不出(두문불출)
막을 두, 문문, 아날 불, 날 출

두문불출(杜門不出)은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집에만 틀어박혀 사회(社會)의 일이나 관직(官職)에 나가지 않음을 비유한다.
이 말은 개성(開城)의 두문동(杜門洞)에서 유래하는 성어이다.
고려(高麗)가 망하고 태조(太祖) 이성계가 조선(朝鮮)을 건국하자 고려의 유신(儒臣) 신구(申珪), 신혼(申暉), 신우(申瑀), 조의선(曹義先), 임선미(林先味), 이경(李慶), 맹호성(孟好誠), 고천상(高天祥), 서중보(徐中輔), 성사재(成思齊), 박문수(朴文壽), 민안부(閔安富), 김충환(金忠漢), 이의(李倚) 등 72명이 개성 동남방의 부조현(不朝峴)에서 조복(朝服)을 벗어 걸어 놓고 한 곳으로 바퀴 쓰고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서쪽 기슭 두문동에 들어갔다.
그들은 산나물을 뜯어 연명하며 불사군(不事君)의 뜻을 굽히지 않고 두문동에서 여생을 보냈다. 이에 후세 사람들이 그들을 '두문동 72현'이라 부르며 칭송하였고, 여기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을 '두문불출'이라고 이르게 되었다.